

재즈를 듣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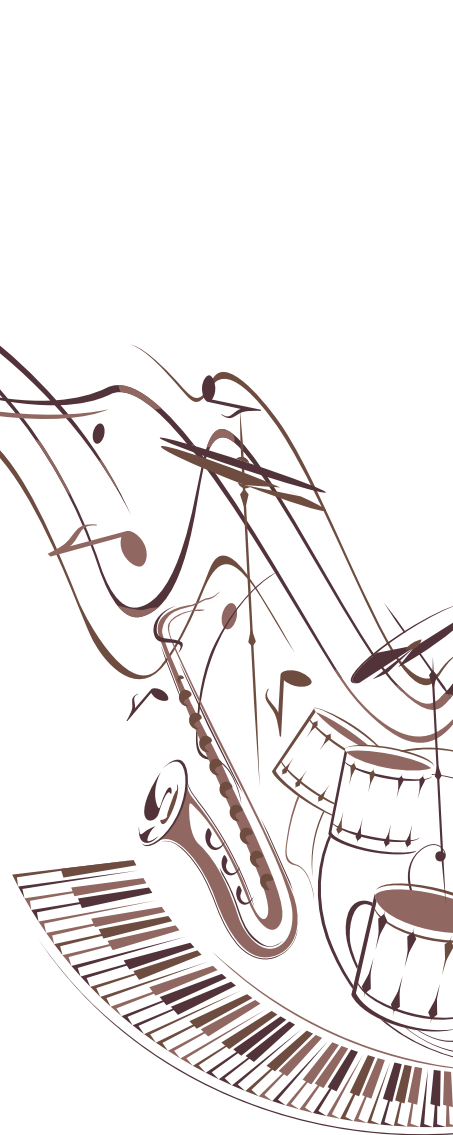
명반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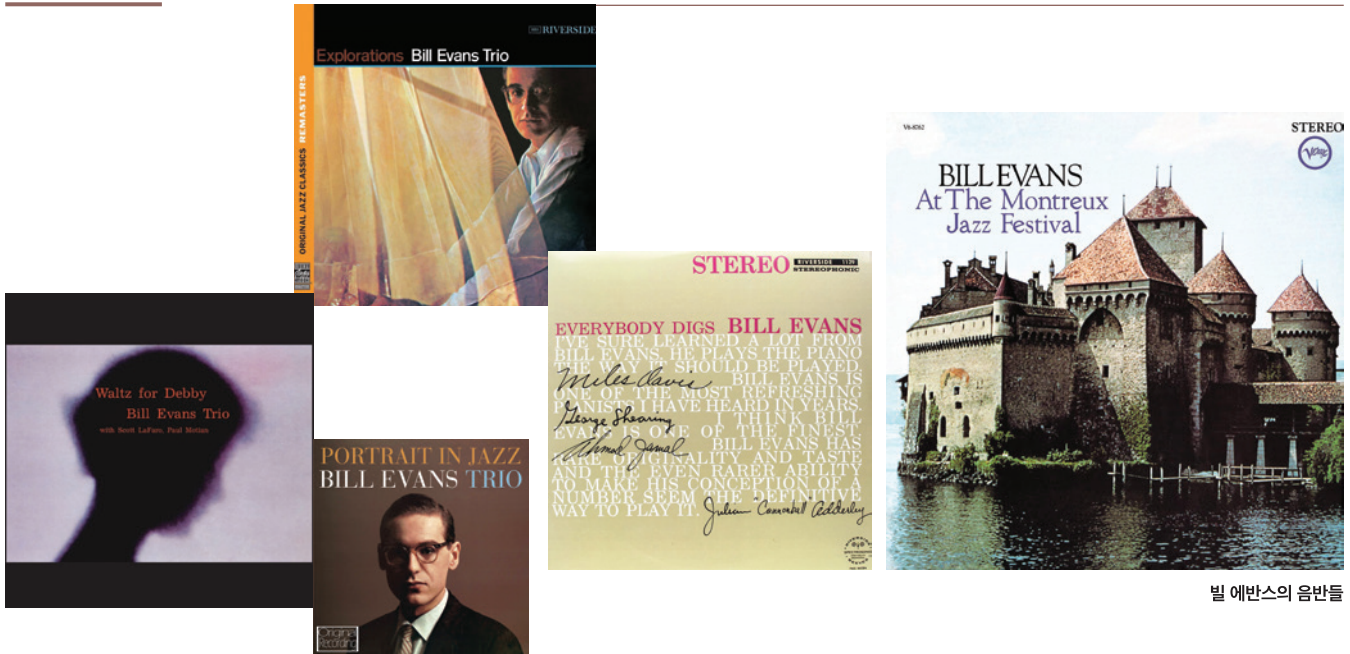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음악팬 사이에서 유명한 ‘펍 가이드’라는 책이 있다. 방대한 음반 정보와 함께 평점이 매겨져 있는데, 간혹 재즈 좋아하는 분 중에 이 책을 끼고 다니는 분을 발견한다. 점수 높은 것만 찾아 구매하는데, 한정된 금액으로 음반을 사려다 보니 나온 궁여지책이다. 그 심정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이 또한 과유불급이다. 펍권에 지나치게 매몰돼 버리면, 자신의 취향과 감각을 믿지 못하고 남이 정해 준 음반만이 명반으로 인식하는 뒤통수에 걸릴 수 있다. 남이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꼴이다. 물론 ‘너와 나’가 모두 인정하는 객관적인 명반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모든 음반은 각자의 삶 속에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사와 연결된 ‘이야기(= storytelling)’가 생겨났을 때 비로소 명반이 완성되는 게 아닐까? 설령 펍권 점수는 다소 낮을지라도, 일상 속에서 반복하여 퇴적층처럼 쌓아 올린 기억이야말로 참된 명반의 필수 조건이 아닐까?

다른 일화로 20대 때 음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간혹 큰 금액을 건네주면서 “괜찮은 음반을 추천해 달라”며 100~200여 장을 한가득 사 가는 사람이 있었다. 사장님은 매출이 많아져 좋아했다. 이것도 음반을 소비하는 한 방식이니 존중받아야겠으나 나라면 하지 않을 것 중 하나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와 장미처럼, 음반도 (비록 무생물이긴 해도) 길들여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때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심사숙고하여 직접 고른 음반을 조금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 갖고 와 처음 듣는 순간, 때로는 첫 만남에 실망했을지라도 조금씩 적응해가다 열광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남과 공유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희로애락이 깃든다. 음반을 1만 장 소유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길들여진 음반은 평생을 투자한들 수십, 수백 장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로 이 글에선 개인적인 음반 얘기를 해 보려고 한다.

‘종로서적’은 1907년에 ‘예수교서회’란 이름으로 개업한 가장 오래된 서점이었다. 한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쭉였던 2002년에 폐업했다가 2016년 종각역 지하에 다시 개점했다. 종로서적이 아직 성업 중이던 1990년대 초 습관처럼 찾은 음악 코너에 피아노 솔로 악보집이





빌 에반스의 음반들

눈에 띄었다. ‘엘텍’이란 출판사에서 나온 악보에는 ‘빌 에반스 피아노 솔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내가 ‘재즈 피아노의 쇼팽’이라 불리는 그 이름과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다. 이 악보는 빌 에반스 트리오가 녹음한 다섯 음반에서 곡을 추려 오선보로 옮긴 것이다. 초등학교 아닌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잠깐 피아노 학원에 다닌 내 실력으로는 그대로 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악보였다. 아무튼, 이 악보집의 영향으로 ‘데비를 위한 왈츠(= Waltz for Debby)’, ‘재즈의 초상(= Portrait In Jazz)’, ‘다 같이 삼질하자(= Everybody Digs)’, ‘탐험(= Explorations)’,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At The Montreux Jazz Festival)’을 우선 사서 들어 보았다. 예나 지금이나 빌 에반스는 싫어하는 재즈팬이 거의 없는 연주자다. 그의 진가를 알고 싶다면 이 다섯 장의 음반으로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토미 플레너건(Tommy Flanagan)은 오랜 세월 엘라 피츠제럴드의 전속 반주자로 활동한 피아니스트이다. 피아노 트리오 음반도 굉장히 좋다. 개인적으로 국내에 ‘재즈 시(= Jazz Poet)’란 음반이 라이선스 발매돼 처음 알게 됐다. 재즈 좋아하는 또래 사람들과 이 음반을 함께 들으며 “이거... 진짜 좋지 않냐?”, “음반 제목도 재즈 포엠타라니... 죽이지 않냐?” 등의 대화를 나

눈 기억은 지금은 추억이 돼버렸다. 또 오래전 회현동 지하상가를 지나다 좌판 같은 무더기 속에서 발견한 ‘확신(= Confirmation)’이란 음반을 듣고 내공을 새삼 확인했다.

메데스키 마틴 & 우드(Medeski Martin & Wood), 줄여서 MMW라고 하는 트리오의 평키한 재즈락에 속하는 음악을 한다. 개인적으로 처음 산 음반은 2000년 발매한 ‘내통자(= The Dropper)’였다. 홍대 근처 ‘애프터아워즈’라는 음반점에서 샀다. 압구정동 근처에 ‘퐁월당’이라는 유럽고전음악 전문 음반점이 있는데 그것을 본 때 재즈 전문 음반점을 차렸다고 들었다. (아쉽게도 지금은 없어졌다.) 음반점 주인이 ‘그 남자의 재즈일기’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했다. 당시 나의 주



토미 플레너건의 음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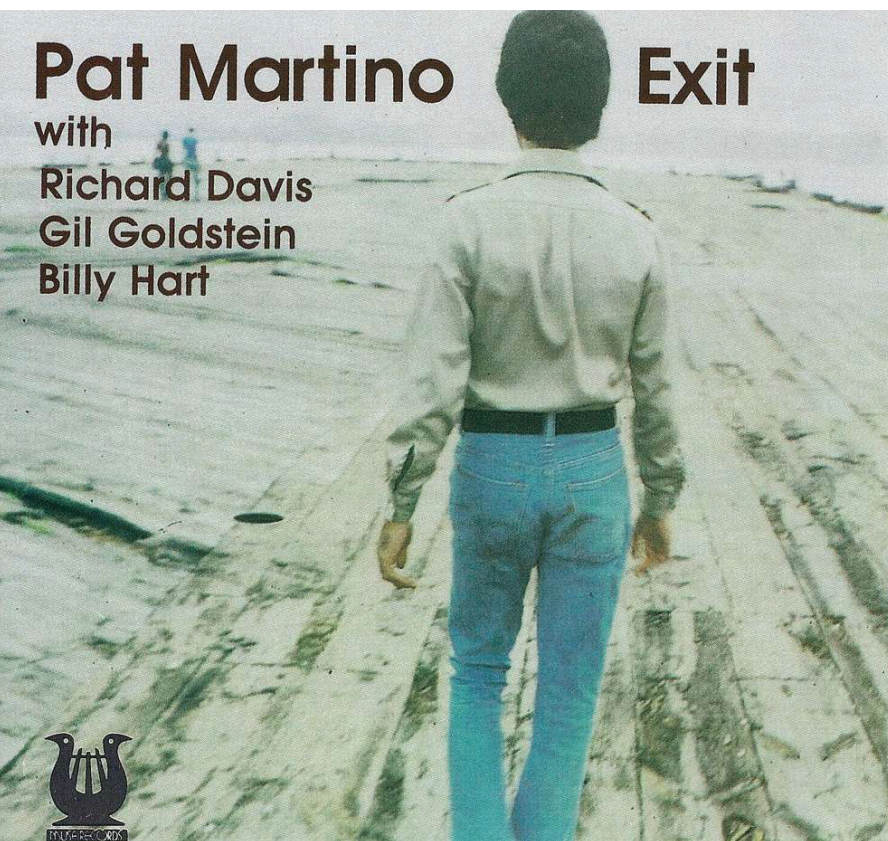
메데스키 마틴 & 우드의 음반 '내통자'

요 관심사는 첫째는 재즈, 둘째는 운동 그중에서도 무술이었다. 그래서 처음 쓴 책 제목이 '그 남자의 무술 이야기'였다. 대놓고 '그 남자의 재즈일기'를 따라 한 것이다. 물론 저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뒤 허락을 얻고 사용했다. 드디어 책이 출판됐을 때 한 권 들고 '애프터아워즈'를 찾아갔고, 간 김에 매장을 둘러보던 중 MMW 음반이 눈에 띄어 구매한 것이다. 무턱대고 산 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 수록곡 중 하나

인 '빠르디도 알토(Partido alto)' 뮤직비디오를 보고 인상에 남았기 때문이다.

음반을 살 때 사람을 헛갈려 엉뚱한 것을 살 때가 있다. 나는 이런 실수를 적어도 두 번 했다. 첫 번째는 빌 에반스(Bill Evans)다. 설마 동명이인의 색소폰 주자가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 했다.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새 음반인 줄로만 알고 사서 막상 껍데기를 열고 음악을 들어보니 피아노 소리는 없고 퓨전 재즈풍의 사운드가 흘러나왔을 때의 그 황당함!

또 한 번은 기타리스트 팻 마르티노(Pat Martino)를 팻 메스니(Pat Metheny)로 잘못 보고 산 경우다. '출구(= Exit)'란 음반을 살 때 반쯤 얼이 나가 있었던 것 같다. 집에 와 씨디 플레이어에 넣을 때까지도 나는 'Pat Martino'를 'Pat Metheny'로 읽었다. 듣다 보니 기타 연주이긴 한데 팻 메스니 특유의 기타 음색도 아니고 전체적인 사운드의 느낌도 좀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비로소 'Pat M...'만 보였던 내 시야에 'Pat Martino'가 정확히 들어온 것! 이렇게 실수로 구입한 음반이다 보니 보기도 싫어져 꽤 오랫동안 구석에서 잠을 자야 했다. 충분한 시간이 흘러 분함(?)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다시 꺼내 들곤 했고, 외려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는 음반 중 하나다. 이후 '그 남자(= El Hombre)', '스트링스(= Strings!)' 등 잘 알려진 명반을 찾아 들으며 나의 편견을 뒤늦게나마 회개(?)했다. 팻 마르티노는 1980년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뒤 기억 상실증에 걸려 기타 연주법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주변의 도움과 자신이 남긴 음반을 들으며 악기를 다시 익혀서 재기했다고 한다.



팻 마르티노의 음반들

오래전 EBS에서 본,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 단편 영화의 한 장면. 스스로 굉장한 천재라는 착각에 빠진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다 조금씩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는 줄거리였다. 이 영화에 존 콜트레인이 연주한 ‘좋은 미끼(= Good Bait)’란 곡이 삽입돼 있어 내심 반가웠다. 한국에서 자란 재즈팬이라면 이 곡을 모르긴 어려울 듯하다. 당시 콜트레인의 유일한 라이선스 음반인 ‘쏘울트레인(Soultrane)’ 수록곡이기 때문이다. 콜트레인 연주를 꽤 여러 가지 들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옆에 끼고 있어 정든 이 음반에 특별한 애착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일 듯하다. ‘쏘울트레인’ 하면 다른 걸 연상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 ‘쏘울트레인(Soul Train)’은 미국에서 1971~2006년까지 방영된 최장수 TV 프로그램이다. 내용은 흑인 대중음악과 스트리트 댄스 중심이었다. 이따금 AFKN에서 이것을 내보내 국내 댄서들에게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한다.

1990년대 초까진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마일즈 데이비스 음반은 ‘카인드 오브 블루(King of blue)’, ‘마일즈(Miles)’, ‘삽질하기(= Dig)’, ‘걷기(= Walkin)’ 공연 실황’ 등 4~5장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마일즈 음반은 이게 전부라고 착각했다. (사실은 라이선스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 사 모은 뒤 “마일즈 음반은 다 갖고 있어요”라며 말실수를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규 음반만도 150여 장에다 세션으로 참가한 것까지 합하면 300여 장에 달하던 애길 듣고 정신이 약간 멍했다. 결과적으로 이 음반을 끼고 살다시피 했기에 펭귄 점수와는 무관하게 하나하나가 매우 친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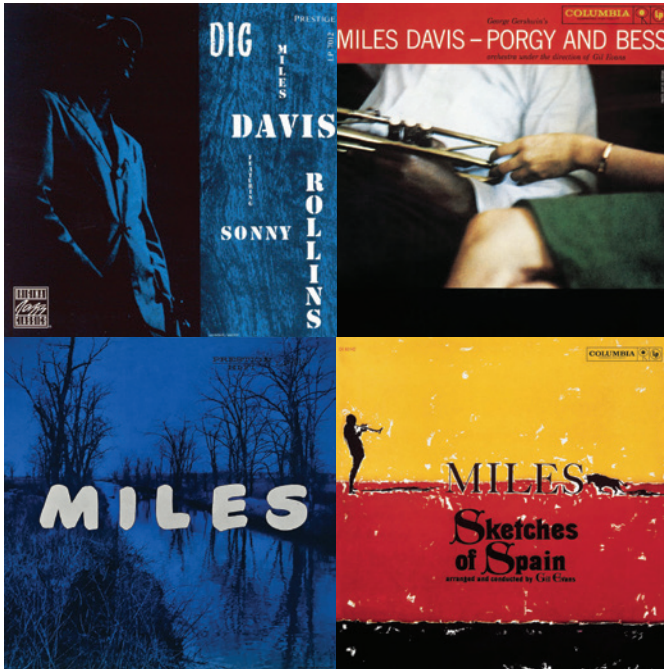
한편 명동엔 ‘디아파송’이라는 음반점이 있었다. 그리 넓진 않았지만 음반의 다양성에 관한 한 한마디로 별천지였다. 글로만 읽었을 뿐 접할 길 없었던 갖가지 음반들이 눈앞에 수백 종류가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서 마일즈와 길 에반스(Gil Evans)가 함께 만든 놀라운 작품, ‘스페인 스케치(Sketches of Spain)’를 살 수 있었다. 길 에반스는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최대, 최고의 앙상블을 만드는 기술로는 듀크 엘링턴 이후 최고라는 평을 글로 읽은 바가 있었기에 궁금증이 컸다. 흥분



존 콜트레인의 음반 ‘쏘울트레인’

된 마음으로 씨디를 사서 집에 돌아와 들어보니 ‘스페인 스케치’는 ‘아랑페즈 협주곡’에서부터 엄청난 내용이다. ‘포기와 베스(Porgy and Bess)’ 역시 두 사람이 협력해 만든 작품이다. 이 음반도 디아파송에서 구할 수 있었다. ‘포기 너를 사랑해(= I Love You Porgy)’와 ‘여름날(= Summertime)’은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이기도 하다. 선율이 다소 밋밋한 ‘여름날’은 그 특색 없음으로 인하여 가수 개인의 역량이 더욱 두드러지는 곡이라고 할 것이다. 잘 부르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고 못 부르면 심심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이 음반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또 하나의 ‘여름날’이 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나는 약음기를 낀 트럼펫,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환상적 앙상블...

어렸을 때 세상은 거의 아날로그였다. 내 또래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해가는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다. 씨디와 엠프3(MP3), 그리고 유튜브는 엄청난 분량의 음악 콘텐츠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나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음악은 대부분 오래전 카세트 테이프와 엘피(LP)로 들었던 것들이다.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어마어마한 콘텐츠 양과 듣는 방식의 편리함 때문인 듯하다. 우선 들어야 할 것이 많으니 한 음반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 좋은 음악일수록 처음엔 느낌이 없다가 반복해서 들어야 비로소 진가를 알게 되는데,



마일즈 데이비스의 음반들

들을 게 너무 많으니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금방 외면해 버린다. 또한 듣기 싫은 곡을 쉽게 다음으로 넘겨버릴 수 있다. 엘피는 듣기 싫은 부분만 골라 바늘을 들었다 놔다 하기가 상당히 귀찮다. 카세트 테잎은 더 귀찮다. 빨리 감기를 하느니 그냥 잠자코 듣는 게 낫다. 듣기 싫었던 일부 음악 중에는 귀찮아서 듣다가 새롭게 들을 귀가 열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다. 그러고 나면 다른 비슷한 종류의 듣기 싫었던 음악들이 굉장히 좋은 음악으로 바뀐다. 🎧

그림 출처 : amazon.co.jp, amazon.com, elusivedisc.com, ebay.com, music-bazaar.com, amoeba.com, cdandlp.com, youtube.com



빌 에반스
'데비를 위한 왈츠'



빌 에반스
'다 같이 삼짱하자'



빌 에반스
'탐험'



빌 에반스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토미 플레너건
'재즈 시'



토미 플레너건
'확신'



메데스키 마틴 & 우드
'넛통자'



팻 마르티노
'출구'



팻 마르티노
'그 남자'



팻 마르티노
'스트링스'



존 콜트레인
'쏘울트레인'



'쏘울트레인'
TV 프로그램



마일즈 데이비스
'삼짱하기'



마일즈 데이비스
'걷기'



마일즈 데이비스
'스페인 스케치'



마일즈 데이비스
'포기와 베스'



마일즈 데이비스
'New Quintet'